

# “채소값 말하자 손님들 발길 돌려...오전 매출 고작 만원”

### 호남통계청, 양동시장·마트 물가 조사

“열흘 전 1만8000원 하던 배추 4포기 값이 3만 3000원으로 뛰었어.”

25일 오전 찾은 광주 양동시장의 한 채소 점포에서 임상문(57) 호남지방통계청 물가조사팀장이 농산물 가격들을 받아 적다가 깜짝 놀라 펜을 놓았다.

임 팀장이 기록한 표에는 배추 4포기 가격이 지난달 말 1만7000원이었지만 이번에는 3만3000원으로 한 달 새 94.1% 뛰었다. 배춧값 급등은 출하량 부족에 따른 것으로, 이달 들이닥친 폭염 때문에 배추에 석회 결핍과 무름병 등이 생기고 있다.

3번째 물가조사팀을 이끄는 임 팀장은 “올해만큼 물가 조사하기 힘든 해가 없다”고 말했다.

이날 임 팀장은 양동시장 점포 14곳과 대형마트 1곳, 중소형 마트 2곳, 꽃집 등 18곳을 찾아 농수축산물 96개 품목 가격을 조사했다.

호남통계청 물가조사팀 5명은 광주 5개 권역별로 한 달에 200곳씩 총 1000곳을 대상으로 458개 품목에 대한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가격 변동이 심한 농축수산물엔 열흘에 한 번, 한 달에 세 번 오전 시간대 위주로 조사한다.

이날 임 팀장과 양동시장과 서구 한 대형마트에

배추 4포기 3만3000원 한 달 새 94.1% 폭등...오이 3배 올라 상추·시금치 등 71개 품목 중 12개 상승...어시장 침체도 여전

동행하며 점점한 71개 품목 가운데 12개는 한 달 새 가격이 상승했다.

가격이 오른 품목 모두 소비자들의 장바구니에 자주 담기는 잔거리였다.

양동시장에서 20년 넘게 채소 장사를 해온 한 상인(67)은 이날 오전 매출이 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며 낮두리했다.

그는 “손님에게 지난달 kg당 7000원에 팔았던 상추를 이달 말 들어 2만원에 판매하고 있다”며 “내일(26일)이 중복인데도 시장통이 한산하고 가격을 듣자마자 발걸음을 돌리는 손님도 많다”고 말했다.

지난달 말 kg당 500원이었던 취정오이 가격은 이달 말 1500원으로, 3배 수준으로 뛰었다. 애호박은 kg당 1000원에서 1500원으로 50% 올랐다.

시금치(kg당 6000원→1만5000원)와 양배추(1통 3000원→5000원), 무(개당 2000원→3000원), 미나리(kg당 5000원→6000원), 감자(kg당 4000원→5000원), 고구마(kg당 5000원→6000원), 대파(한 단 5000원→6000원) 가격도 한 달

새 크게 올랐다.

만원 한 장으로 지난달에는 참외 10개를 살 수 있었지만, 이달에는 8개만 구매할 수 있다.

과일을 파는 오광자(79)씨는 “지난해 수확한 사과(부사) 물량이 소진되면서 서부농산물도매시장에서 좋은 상품을 구하기 힘들다”며 “손님들은 품질 좋은 과일들을 대량 사들이는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에 몰리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생선 장사 15년 경력 양봉희(56)씨는 “해면의 수온이 비정상적으로 바뀌면서 어획량은 줄고 있는 추세지만 코로나19로 수산물 소비가 줄면서 어시장 침체가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임 팀장은 “올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정점을 찍고 내려갈 것이라는 예측이 있지만, 기후변화와 국제 경제 불안으로 농산물 가격이 널뛰면서 이 또한 장담할 수 없다”며 “국내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이 4주 연속 하락 추세였지만 이번 주 국제유가가 또다시 배럴당 100달러를 넘기면서 하반기 물가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25일 오전 임상문 호남지방통계청 물가조사팀장이 광주 양동시장 한 채소 점포를 찾아 농산물 가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하반기 첫 소비자물가 동향 조사 결과는 오는 8월2일 발표된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6월 생산자물가지수(잠

정)는 5월보다 0.5% 오른 120.04로, 올해 1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글·사진·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금리 상승에 광주 청년 ‘영끌’ 부실 대출 우려”

### 1분기 2030 가계대출 증가율 9.6%...상환 부담 커져

광주 20~30대 청년층이 ‘영혼을 끌어모을’ 정도로 주택매매를 위한 가계대출을 늘리면서 금리 상승에 따른 ‘부실 대출’이 우려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010년 이후 네 번째 주택가격 상승기(2020년 11월-)를 지나고 있는 광주가 장기적으로는 미분양 물량이 늘어나면서 채무 불이행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같은 내용은 25일 박지섭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과장과 노민재 조사역이 발표한 조사연구자료 ‘광주 주택 매매시장 동향 및 리스크 점검’ 결과에 담겼다.

박 과장이 1~4개 구간으로 나눈 광주 주택가격 상승기별로 월평균 가계대출 증가율을 산출해보니 4번째 상승기(2020년 11월~올해 4월) 가계대출 증가율은 1586억원으로 최고를 기록했다.

이전 상승기 증가액은 ▲1상승기(2010년 9월~2012년 7월) 901억원 ▲2상승기(2014년 7월~2015년 2월) 1539억원 ▲3상승기(2018년 1월~2019년 2월) 1331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4번째 상승기에서는 비은행권 가계대출 월평균 증가액이 453억원으로, 이전 상승기 평균 증가액 236억원의 2배 수준으로 뛴 것이 특징이다.

같은 기간 광주 예금은행에서의 가계대출 이자부담 증가액은 월평균 81억원으로, 이전 상승기 평균 30억원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상승세에서 가계대출의 건전성은 점차 악화하고 있다. 특히 저소득, 20~40대 차주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

광주의 총처분가능소득에서 가계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증가하면서 2010년 64.6%였던 비율은 2020년 89.1%로 치솟았다.

올해 1분기 20~30대 가계대출 증가율(전년 동기비)은 9.6%로, 최근 4년간 같은 분기 기준 최고(2019년 6.0%, 2020년 7.3%, 2021년 7.4%)를 기록했다.

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을 뜻하는 ‘LTI’는 1분기 기준 연소득 3000만원 미만 저소득층이 277.2%로, 고소득층 224.7%(연소득 5000만원 이상)와 중소득층 212.7%(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 비율을 크게 웃돌았다. 20~30대 LTI는 1분기 기준 2020년 211.3%→2021년 227.6%→올해 240.8% 등으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박 과장은 “향후 인구 고령화가 심화하고 1인 가구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소형아파트 등 실수요에 부합하는 공급정책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의 급격한 조정 가능성에 대비해 입주 시점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공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하반기 소상공인 코로나 경제회복 특례보증

### 신보 호남본부, 685억 규모

신용보증기금 호남영업본부는 올해 하반기 광주·전남·전북지역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685억원 규모 ‘코로나19 경제회복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2년간 지원하는 보증 규모는 3조2500만원이며, 올 하반기 전국 8000억원이 지원된다. 광주·전남·전북 지원 규모는 685억95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을 제한되고 매출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소기업 및 연매출 50억원 이하 중소기업)이다.

방역지원금이나 손실보상금을 받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특례보증을 통해 운전자금 등 최대 3억원, 시설자금은 소외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된다.

보증비율은 90%까지 상향했으며, 보증료율은 0.5%포인트 차감된다. 특히 신보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특화 컨설팅을 받은 소상공인은 보증료 0.1%포인트를 추가 차감받을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 “통관 절차 간소화로 물류비 절감 지원”

### 광주본부세관, 기아 오토랜드 광주 방문

광주본부세관은 25일 광주지역 주력산업 분야인 수출장비산업의 대표 수출기업 기아(주)오토랜드 광주를 방문했다.

광주지역 수출의 30.2%를 차지하고 있는 수출 장비는 지난해 60억 달러, 올해 6월까지 27억 달러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방문은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러·우 사태 지속 등 위기 극복과 차세대 친환경차 및 모빌리티 사업지원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승환 광주본부세관장은 “국내 통관 절차를 보다 간소화해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FTA 체결국으로 수출하는 친환경

차량에 대한 안정적인 원산지 관리를 위해 협력 업체를 포함한 교육과 컨설팅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용 기자 pboxe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03.69 +10.55
↓ 코스닥	789.69 -0.06
↓ 금리(국고채 3년)	3.153(-0.065)
↑ 환율(USD)	1313.70(+0.70)

상무지구(상가매매)	당진(신축)원룸매매	경매교육【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p>1) 감정가(시세) <b>9억</b> 매매가 <b>7억</b> (용 4억가)</p> <p>2) 월수익 <b>350만</b> (보 4천)</p> <p>3) 평수 140평, (전용 100평)</p> <p>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p>	<p><b>월수익 750만</b> <b>연수익 9천만</b> <b>매매 14억5천</b> (용7억)</p> <p>▶ 임대관리 직접해드릴 10년간 임대걱정 없음.</p> <p>대산항10분, 화력발전소 5분 현대오일뱅크,엘지정유,입주및공사시작 엘리베이터있음, 주인세대있음.</p>	<p>1) 특수반모집 -&gt;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p> <p>2) 전문반모집 -&gt;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p> <p>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gt; 평생 회원반</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광산구 쌍암동(근린상가)▶ 감정가 5억1천 -&gt; 최저가 3억6천 (7/14)</li> <li>광주 광산구(근린상가)▶ 감정가 2억1천 -&gt; 최저가 1억5천 (7/27)</li> <li>광산구 장덕동(아파트)▶ 감정가 4억5천 -&gt; 최저가 3억 1천 (8/04)</li> <li>서구 매월동(임야)▶ 감정가 6억2천 -&gt; 최저가 3억5천 (8/03)</li> <li>북구 용봉동(근린상가)▶ 감정가 32억 -&gt; 최저가 18억 (8/04)</li> <li>서구 치평동(근린상가)▶ 감정가 6억2천 -&gt; 최저가 3억5천 (8/3)</li> <li>동구 운림동(근린주택)▶ 감정가 6억4천 -&gt; 최저가4억5천 (5/26)</li> </ul>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장성군 서삼면(농지)▶ 감정가 1억4천 -&gt; 최저가 8천(8/03)</li> <li>담양군 대덕면(임야)▶ 감정가 5억2천 -&gt; 최저가 3억7천 (8/3)</li> <li>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감정가 3억2천 -&gt; 최저가 1억1천 (8/3)</li> <li>다양군 월산면(임야)▶ 감정가 4억7천 -&gt; 최저가 3억3천 (8/3)</li> </ul>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남 김해시(숙박시설)▶ 감정가28억 -&gt; 최저가 14억 (7/22)</li> <li>전남 영암군(근린시설)▶ 감정가 6억4천 -&gt; 최저가2억8천(7/19)</li> </ul>
<b>010-6670-9800 (062-382-5500)</b>		